

## 춤추는 혼을 간직하며 사는 인생

안젤라(지금은 고인)가 파스쿠알 올리베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0대 후반의 이미 스페인 최고의 무용가 중 한명이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팀에 있는 동료 무용수가 프리마 발레리나(최고 무용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안젤라는 파스쿠알과 이제 겨우 만난 사이였지만 파스쿠알로부터 신심의 환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안젤라는 파스쿠알을 신뢰할 수 있었다.

파스쿠알은 그녀에게 당신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고, 다시 말해 그 동료의 행복을 기원해 주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안젤라는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그런 안젤라는 자신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인 라이벌을 위해 기원하고 싶지 않았다. 파스쿠알은 또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원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친구가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파스쿠알은 계속해서 ‘남묘호렌게교’라고 부르면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라는 말도 했다.

파스쿠알이 이야기를 할 때 안젤라는 그의 초록색 눈 뒤에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산속 호수처럼 맑고 순수한 그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안젤라가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그녀가 행복해 졌으면 좋겠어라고 제목을 부르자 그 동료 무용수도 안젤라에게 불쾌한 행동을 그만두고 따스하게 대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르고 둘은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5년 후, 1976년 안젤라와 파스쿠알은 결혼하였다. 파스쿠알은 자신의 나라인 미국에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안젤라도 미국에서 무용수로 함께 활동하기로 동의하였다. 얼마 후, 그들은 소년원에서 공연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솔직히 안젤라는 그것은 그녀의 수준 아래라고 생각되어 망설였다.

자신은 열아홉살에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뽑혀 공연하였고,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공연하고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텔레비전과 영화에도 출연한 그녀였다.

지금의 공연 초대를 그러한 대단한 행사와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감자들이 그녀의 예술을 감사하고 이해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품위있게 행동하지 않고 사회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 공연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안젤라가 이러한 말을 파스쿠알에게 하자 그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넘쳐 나오는 부처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또 파스쿠알은 젊은 사람들을 교정하는 것을 돕는 기관에서 우리의 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그들은 변할 거라고 확신했다.

이에 안젤라도 동의했다.

소년원의 시설은 엄격한 감시하에 있었고 분위기는 무서웠다. 그녀가 걱정했듯 처음에 관중은 소란스러웠고 주의 산만했다.

그녀는 화가 났으나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두려워 마라. 사명을 완수하자"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파스쿠알도 최선을 다했으며 공연 사이의 짧은 막간을 이용해 자신의 삶의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스페인 이민자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플라멩고 기타 연주자였다.

어린 소년이었던 파스쿠알은 스페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거기서 처음으로 춤을 배우게 된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명성 높은 호세 그레코 무용단에서 최고 무용수로 일하게 되었다.

1970년 그는 간질환이 발병했고 의사로부터 10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다. 다시는 춤을 출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여러 해 동안 니치렌 불법을 하고 있었지만 죽음과 정면으로 맞선 싸움은 그의 심을 더 깊게 해 주었다. 그때 그는 ‘빈 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매 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좋은 인을 쌓아야 하는 이유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원에서의 공연은 계속되었다. 진지함과 혼신을 다한 무용수들의 공연은 점차로 관중을 매료시켰고 관중은 조용해졌다.

파스쿠알은 계속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라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라고 말하며 자신도 예전엔 자신감도 부족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진심어린 공연이 끝날 때 파스쿠알은 따스한 어조로 질문이 있는지 묻자, 여럿의

손이 올라갔다.

그때 한 건장한 청년이 "할 말이 있어요" 하고 소리쳤다. 청년은 일어서서 감정에 북받쳐 이야기했다. "이제까지 살아 오면서 당신처럼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만나지 못 했습니다. 모두가 당신 같았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1995년 안젤라는 류마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한때 증상은 너무 심각해서 걸을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이런 고통은 인간혁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하게 제복했고 재활치료도 받았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당신과 같은 증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춤을 출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안젤라는 '지금도 류머티즘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조정할 수 있고 그 병과 잘 지내고 있으며 말하자면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그 병을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했으며 불운한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이자 선물이고 공덕이라고 말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몸과 마음이 묘법의 당체임을 깨달으면 환희에 넘쳐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장해를 만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 넘치는 춤추는 정신으로 즐겁게 싸우고 용기 있게 극복하는 것이다.

2001년 여름 , 파스쿠알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항상 피곤했고 종종 격심한 위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몇 번의 검사 후, 비호지킨스 림프종이 발견되었고 종양은 이미 4기로 접어들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젤라는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파스쿠알은 화학치료를 받았고 부작용은 심각했다. 그는 마치 트럭에 치인 것과 같이 심한 고통을 겪었다. 심각한 구토와 미각을 잃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우울해 하지 않았으며 이 병을 쓰러뜨리고 반드시 승리 할 것이며 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파스쿠알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불법을 계속해서 알려 나갔고 2002년 새해에 그가 절복한 2명이 본존님을 수여 받았다.

그 다음날인 1월 2일, 검사 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사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 신중하게 검사를 반복한 결과, 암 세포가 그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렇게 가까이 닳았던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재기한 것이었다.

5월, 파스쿠알과 안젤라는 일본을 방문하여 창가대 대강당에서 공연하였다.

파스쿠알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으나 더 멋져 보였고 전보다 더 훌륭하게 춤을 추었다.

춤은 벌거벗은 영혼을 드러낸다. 파스쿠알이 스승 앞에서 한번 더 춤을 추겠다는 의지가 병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파스쿠알은 춤을 추면서 살아 있다는 환희와 평화를 위한 용기 있는 헌신과 인류에 대한 그의 정열적인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것은 진정한 승리의 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놀라운 회복의 실증이 있는 지 1년, 암이 재발했음에도 그의 생명경애는 놀라운 정도로 높았고 전국에 불법을 전파하겠다고 더욱 결의했다.

파스쿠알은 신심의 진정한 힘을 보여 준 것이다.

2003년 9월 19일 파스쿠알은 14명의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파스쿠알은 ‘들리세요? 미국의 광선유포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듯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띤 채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고맙습니다. 파스쿠알, 고맙습니다"하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파스쿠알은 그들을 무척이나 많이 가르쳐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한 감사의 합창은 다른 멤버들에게도 퍼져 나갔다.

파스쿠알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으며 구도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광선유포라는 평화의 이상에 철저한 삶의 모델이었다.

파스쿠알은 59세였다. 그는 삶을 위협한 심각한 첫번째 병을 극복한 이후로 30년이나 갱사수명하였다. 그리고 병이 생긴 후에도 온 힘을 다해 살았고 생명에 가득 넘치는 보물을 쌓았다.

안젤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남편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병과 싸우면서 생명상태를 향상시키려 매순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했고 결혼생활 27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지요.

언제나 서로를 도와주고 스승과 함께 스승의 평화에 대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끝>